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제29권 4호(2016年11月)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6:29(4) 105-125
http://jkmc.jams.or.kr ISSN 1229-8328
http://dx.doi.org/10.14369/skmc.2016.29.4.105

『金匱玉函經』의 成書 배경과 학술 체계

[1]한국한의학연구원 미병연구단 · [2]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3]한의학고전연구소 · [4]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김상현[1] · 윤기령[2] · 김혜일[3] · 윤은경[3] · 장우창[3, 4] *

A Study on the Theoretical System and Publication Background of *Jinkuiyuhanjing*(金匱玉函經)

Kim Sanghyun[1] · Yun Kiryoung[2] · Kim Hyeil[3]
Yoon Eunkyung[3] · Jang Woochang[3, 4] *
[1]Mibye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3]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4]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and theoretical system behind the *Jinkuiyuhanjing* that was edited and published at the same time as the *Shanghanlun* by the *Jiaozhengyishuju* (governmental publishing sector) of Northern Song.

Methods : To determine the background against which *Jinkuiyuhanjing* was published, its position and meaning within the Medical Texts Editing Project of the *Jiaozhengyishuju* was firstly examined. For its theoretical background, the contents of *Zhengzhizongli,* which is considered to be an introduction to the *Jinkuiyuhanjing* was thoroughly analyzed. Moreover, to understand the unique philosophy of the *Jinkuiyuhanjing*, referneces were made to relevant contents in the 'Shinh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Results : The findings of the study call for a re-evluation of the *Jinkuiyuhanjing* as holding a unique philosophical perspective and having an independent lineage instead of being a supplementary material to the *Shanghanlun* as it was once understood.

Conclusions : The research of Zhangzhongjing's Classical Formulas(經方) revealed that the theoretical thinking and contents of *Jinkuiyuhanjing* hold much value and should be actively studied and applied. Furthermore, it lends important meaning in understanding the tradition of Korean Classical Formulas as represented in the *Donguibogam.*

Key Words : *Jinkuiyuhanjing*(金匱玉函經), *Shanghanlun*(傷寒論), Three Poles Philosophy(三極哲學), *Donguibogam*(東醫寶鑑), Buddhist Four Elements Theory(四大說)

* Corresponding Author : Jang Wooch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Ⅰ. 서 론

『傷寒論』은 원저가 서기 202-203년(建安 7-8년) 무렵에 張仲景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서는 전란 중에 실전되었다고 한다. 이후 220-235년 무렵 西晉人 王叔和가 張仲景의 逸文을 모아 撰次하는 과정을 통하여 成書되었으나 이 역시 실전되었다. 현전하는『傷寒論』판본은 北宋 校正醫書局에 의해 1065년에 간행된 소위『宋本傷寒論』을 기초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金匱玉函經』은『傷寒論』과 함께 北宋 校正醫書局의 교정을 거친 후,『傷寒論』보다 1년 늦은 1066년에 공식 간행된 책이다. 그런데『상한론』과 달리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가 교정의서국 이후 700여년을 격한 1717년에 홀연 다시 나타나는데, 지금의 江蘇省 吳縣 사람 陳世杰은 何焯으로부터『금궤옥함경』의 수초본을 입수하고 "喜忘寢食"의 노력 끝에 重刻本을 내어 놓았으나 이 역시 세간에 널리 유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陳氏의 중각본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학자들의 노력으로 일본에서 간행, 유포됨으로써 인몰을 면할 수 있었으나 역시 중국, 한국 등지로 널리 유포되지는 못하였다. 근대 들어 실전 의서를 복원하려는 중국 학계의 노력 하에 章太炎[2]과 같은 저명한 학자의 열성적인 지지가 더해져 마침내 1955년 중국 인민위생출판사에서 陳氏의 중각본을 기초로『금궤옥함경』800권을 활자로 인쇄하여 반포함에 따라 마침내 세간에 널리 유포되어 학자들의 손에 닿기에 이르렀다.

이후『금궤옥함경』은 중국 판본학계의 감정을 거친 끝에『송본』,『성본』,『돈황본』,『고계충본』,『당본』,『강평본』,『강치본』등과 함께 소위 8종의『상한론』공식 판본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소위 桂林本(一名 白雲閣本), 長沙本(一名 劉昆湘本), 涪陵本 등 3종은 위서로 판정되어 제외되었다.[3]『상한론』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의 판본학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상한론』의 절대적인 지위는 차츰 의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康平本』과 같은 이종 판본이 발견됨에 따라 일본과 한국에서 먼저『상한론』해석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었다.[4] 최근 중국에서 北宋 校正醫書局의 교정이 현대적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객관성, 엄밀성, 정확성을 결여하는 자의적 개정이 수반되는 다소 '수상한' 사업이었음에 유의해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5]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에 의한 공식 출간을 계기로『금궤옥함경』에 대한 연구 성과가 차츰 쌓여나감에 따라『금궤옥함경』이야말로『상한론』에 비해 우수하고 완정하여 張仲景의 眞本에 더욱 가깝다는 견해가 거의 정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금궤옥함경』에 대한 중국 판본학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錢超塵 著『傷寒論文獻通考』의 제1장「張仲景思想及著作考」, 제2장「金匱玉函經的研究與考證」을 참고하면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할 수 있다.[6] 판본학적 검토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후로 최근에는 내용 면에서의 연구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張波는『금궤옥함경』의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조문 조합, 정리 편차로 볼 때『금궤옥함경』의 판본 면모가『상한론』에 비해 왕숙화의 "撰次仲景遺論"에 가까우며, 치법·방약 방면에서 중요한 思路를 제공한다. 총괄적으로,『상한론』은 공헌이 크지만 其說을 讒入하여『상한론』의 본뜻을 어둡게 한 면도 있다. 그러므로『상한론』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주관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면『상한론』에만 의거하면 안되고 여러 판본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 특히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0735
Email : jangchang@khu.ac.kr
Received(27 October 2016), Revised(14 November 2016), Accepted(15 November 2016)

1) 錢超塵 著.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園出版社. 2000. p.6, 16.
2) 章太炎은 근대 中國의 國學者로서『상한론』연구에도 일가견이 있어『금궤옥함경』의 발간에 중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의『상한론』연구에 대해서는 梁蕾의 연구(梁蕾. 試論章太炎傷寒論研究的特點與成就. 북경중의약대학. 석사학위논문. 2006.)를 참조할 것.
3) 李順保 編著.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園出版社. 2000. p.2.
4) 김용옥 해제. 注解傷寒論十卷. 서울. 통나무. 1996. pp.1-24.
5) 黃龍祥. 試論宋代校正醫書局私改醫書之弊. 中國中醫基礎醫學雜志. 1997. 3(4). pp.43-45.
6) 錢超塵 著.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園出版社. 2000.

『금궤옥함경』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가치를 높게 평가한 바 있다.[7]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국내 학계에 『금궤옥함경』의 학술적 가치를 알릴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금궤옥함경』은 현재 국내에 기초적인 성격의 연구 단 1건이 보고되어 있다. 염용하 등은 "『금궤옥함경』은 송본 『상한론』과는 분명히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승된 판본으로 볼 수 있으며 …『상한론』의 연구에 있어 송본 『상한론』만을 묵수하는 태도는 옳지 않으며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교감을 거쳐야 하는데, 특히 『금궤옥함경』의 판본 가치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여 『금궤옥함경』의 연구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8] 『금궤옥함경』의 텍스트는 그 교점본, 교감본, 연구본 등이 현재 중국에서 거듭 출판되고 있으나,[9] 국내에는 출간된 바 없다.

『금궤옥함경』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중국학계의 평가는 그 교감본을 내놓은 李順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금궤옥함경』의 발견은 확실히 『상한론』의 연구, 교감, 판본 유전 등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 王叔和는 『상한론』을 撰次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금궤옥함경』도 撰次하였음을 볼 때 『상한론』이 한말 동진 시기에 이미 상이한 판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北宋 校正醫書局 「校正金匱玉函經疏」의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북송 교정의서국은 『금궤옥함경』을 『상한론』의 別本으로 인정하였다. '그 文理가 혹 『상한론』과 같지 않은 것이 있으나 그 뜻은 모두 통한다'라고 한 것을 보건대, 북송 교정의서국은 『상한론』이 선본이 아니라고 인식하여 『금궤옥함경』을 병존한 것이다.

3. '그 문리가 혹 『상한론』과 같지 않은 것'은 단지 『돈황본상한론』 혹은 『당본상한론』에서 보임을 통해 볼 때, 『금궤옥함경』은 『상한론』과는 隋唐 시기에 병존한 상이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평가는 『금궤옥함경』이 『상한론』과 상이한 기원을 가지며 『상한론』을 상회하는 판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상한론』이 유일무이한 傳本, 善本이려면 이에 상응하는 교감, 보충, 정리, 연구를 거쳐야 하며 『금궤옥함경』은 이 방면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라고 하여 『상한론』의 유일무이한 지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10]

최근 일각에서 『금궤옥함경』 자체의 시각과 논리에 대해 주목하는 견해가 제출되고 있다. 현대 중국 傷寒學의 대가로서 최근 중국 經方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王慶國, 陳明, 李宇航 등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劉渡舟는 『금궤옥함경』의 학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평가를 제기하고 있다.

"『금궤옥함경』은 조문의 배열 순서, 개별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그 체례까지 『상한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방법·이해와 학술방면이 『상한론』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11]

여기서 방법·이해가 다르다 함은 철학적, 사상적 기반이 다름을 뜻하며, 學術方面이 다르다 함은 학술 유파와 사상을 달리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劉渡舟는 일개 학자를 넘어서는 현대 중국 상한학을 대표하는 석학으로서 그가 『傷寒論講義』의 총론에서 밝히고 있는 『상한론』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은 현대 중국의 『상한론』 해석의 기본적인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12]

---

7) 張波. 『金匱玉函經』在『傷寒論』研究中的學術價值. 山東中醫藥大學. 석사학위논문. 2002.

8) 염용하 외 3인. 하기태, 김준기, 최달여. 금궤옥함경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1). pp.8-13.

9) 2015년 陳明의 點校本이 출간되었는데 교감을 마친 陳明은 『금궤옥함경』에 대하여 송본『상한론』의 古老的 板本으로서 極高의 판본과 학술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柳長華 主編, 陳明 點校. 金匱玉函經.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5. 點校說明). 2015년 錢超塵은 기간의 판본학적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影印金匱玉函經校注考證』를 내놓은 바 있다.(錢超塵 著. 影印金匱玉函經校注考證. 北京. 學苑出版社. 2015.)

10)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p.140-152.

11) 王慶國, 陳明, 李宇航, 整理. 劉渡舟 著錄. 劉渡舟傷寒論講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4.

12) 정창현, 김혜일 옮김. 劉渡舟 傷寒論講義. 파주. 물고기숲. 2014. 총론.

이와 같은 『금궤옥함경』 연구 방향에 대한 의미심장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의서국 이래 1,000년 넘어 익숙한 『상한론』 중심의 사고는 『금궤옥함경』의 학술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일정한 걸림돌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금궤옥함경』 고유의 학술사상이 어떠한 것인지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얻었기에 학계에 보고하고 질정을 구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금궤옥함경』의 학술사상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그 성서 배경부터 살펴보았다. 장중경 학술 연구를 위해 史的 전승을 살펴야 한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거듭 강조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 성과들에 기반하여, 북송 교정의서국에 의한 의서교정사업 전반에서 『금궤옥함경』과 『상한론』의 교정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검토함으로써 독립적인 『금궤옥함경』의 전승의 존재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금궤옥함경』의 학술사상 방면의 연구는 미답의 분야인 까닭에 직접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우선 그 실마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한론』에는 없고 『금궤옥함경』에만 있는 『금궤옥함경』 全書의 총론에 해당하는 문서인 「證治總例」에 주목하여, 이 문서를 기반으로 전서의 학술 사상과 논리 체계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궤옥함경』의 醫哲學을 대표하는 三極哲學과 四大發病說이 『동의보감』에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양자의 상호 관련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 상황에서 『금궤옥함경』의 의철학과 『동의보감』의 상관성을 곧바로 주장하는 것이 무리이겠으나, 『동의보감』에 포함된 관련 내용이 역으로 『금궤옥함경』 의철학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일정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두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부적인 주장과 논거로 들어가면 다소 결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연구의 시각과 접근 방식이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는 張仲景 經方 연구의 새로운 흐름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Ⅱ. 본 론

1. 『金匱玉函經』의 성서 배경

1.1 張仲景方과 북송 교정의서국의 의서교정사업

본고는 『宋本』, 『康平本』 등 異本으로 분화하기 이전 張仲景의 原著에 가까운 상태를 중국 史志 등의 예에 따라 『張仲景方』으로 범칭하기로 한다. 史志 등에 언급된 仲景書의 書名을 연대 순으로 살펴보면, 葛洪의 『肘後備急方』에 『張仲景諸要方』, 『張仲景諸藥方』이라 한 것이 보이고, 『太平御覽』에 『張仲景方』, 『張仲景方論』이라 하였으며, 『隋書·經籍志』에서는 『張仲景方"이라 하였고, 『舊唐書·經籍志』에 『張仲景藥方』이라 하였으며 孫思邈 『千金方』에 『仲景要方』이라 하였고, 『新唐書·藝文志』에 『張仲景藥方』이라 하여 대체로 『傷寒論』 이전에 『張仲景方』이라 지칭한 것들이 많다. 『傷寒論』이란 서명은 『舊唐書·經籍志』에 최초로 "張仲景藥方 15卷과 함께 又傷寒卒病論 10卷"이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후대에 나타난 명칭이다.[13]

北宋 校正醫書局은 "張仲景方"에 해당하는 『상한론』, 『금궤옥함경』, 『금궤요략』의 3책을 교정, 간행하였다. 현행 『상한론』이 1065년 北宋 校正醫書局에 의해 교정된 판본에 기초한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교정의서국이 『상한론』과 동시에 그 別本으로 『금궤옥함경』을 교정, 발간한 사실은 최근에야 알려졌다. 교정의서국이 최종적으로 간행한 11종 의서 가운데 유독 한 書物에 대해서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서물로 의서교정사업의 중심에 자리한 『상한론』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준 판본 외에 이종 판본을 교정하여야 했던 까닭이 있을까? 오늘날 판본학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상한론』보다 오히려 『금궤옥함경』을 정본으로 선택하였다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필 『상한론』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일가?

최근 북송 교정의서국 관련 연구에 따르면, 당초 교정의서국은 8종 의서를 교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사업 중도에 3종이 탈락되고 6종이

13) 錢超塵 著.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園出版社. 2000. pp.28-30.

추가되는 상당한 변화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11종 의서를 교정, 간행하는 것으로 마쳤음이 보고되고 있다.[14]

Table 1. A change in copyediting and revision list of the Jiaozheng-yishuju(校正醫書局). 교정의서국 교정목록의 변화.

	계획	제외	추가
서목 변화	神農本草 靈樞 太素 甲乙經 素問 廣濟 千金 外臺秘要(총8종)	靈樞 太素 廣濟(총3종)	傷寒論 金匱玉函經 金匱要略方論 千金翼方 本草圖經 脈經(총6종)
최종 교정	嘉祐本草 本草圖經 脈經 甲乙經 素問 傷寒論 金匱玉函經 金匱要略方論 千金方 千金翼方 外臺秘要(총11종)		

『張仲景方』에 해당하는 『傷寒論』, 『金匱玉函經』, 『金匱要略』은 애초 기획에 포함되었던 것이 아니라 중도에 추가된 서적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이 주목된다.[15] 추가된 의서 6종 가운데 孫思邈의 『千金翼方』은 소위 『唐本傷寒論』을 포함하고 있으며, 『脈經』 역시 『張仲景方』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추가 의서 6종 가운데 5종이 『장중경방』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 11종 서적 전반에 대하여, 『漢書·藝文志』에서 제시된 醫經과 經方으로 대별하는 의학지식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보면, 의학이론(醫經)과 치료기술(經方)을 대분류로 삼아 시간단위의 하위분류를 곁들임으로써 고금의 의학지식을 체계적으로 종합함을 목표로 하였음을 볼 수 있다.(Table 2)

이상과 같이 명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의서교정사업이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사업 전반을 기획, 관리한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宋史·高若訥傳』에 따르면 오래도록 전하지 않던 張仲景의 『傷寒論訣』, 孫思邈의 方書 및 『外臺秘要』를 高若訥이 오류를 교정하여 간행함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이러한 책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목된 장중경의 『상한론결』, 손사막의 방서 및 『외대비요』는 교정의서국의 주요 방서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이다.[16] 물론 高若訥은 교정의서국 사업 시기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의서교정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교정작업에 대한 공식 보고서 격인 「傷寒論序」, 「校正金匱要略方序」, 「校正金匱玉函經疎」에 手記를 남기고 있는 高保衡, 孫奇, 林億 등이 모두 高若訥과 친족 및 사제 관계로 긴밀하게 얽혀 있음이 최근 밝혀졌다. 林億은 高若訥의 사위이며, 高保衡은 高若訥의 次子이고, 孫奇는 고약눌의 제자로 교정의서국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孫兆와 형제간이

Table 2. Medical texts classification of the Jiaozheng-yishuju(校正醫書局). 교정의서국 의서분류체계.

분류	醫經	經方				
		本草	張仲景方			時方
			傷寒雜病論		金匱玉函經	
서목	素問 甲乙經 脈經	嘉祐本草 本草圖經	傷寒論	金匱要略	金匱玉函經	千金方 外臺秘要 千金翼方

14) 孟永亮. 北宋校正醫書局研究. 北京中醫藥大學. 박사학위논문. 2014. p.156.

15) 孟永亮, 梁永宣. 北宋校正醫書局對張仲景著作校勘考述.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15. 17(5). pp.149-150.

16) 孟永亮, 梁永宣. 北宋校正醫書局官高保衡考述. 中醫文獻雜志. 2014. 6. pp.40-41.

다.[17]

이상 교정의서국의 학자들이 傷寒을 치료하는 의서에 주목했던 까닭은, 기본적으로 손사막이 "嘗見太醫療傷寒, 惟大靑知母等諸冷藥投之, 極與仲景本意相反, 湯藥雖行, 百無一效"[18]라고 회고한 바와 같이, 傷寒이 당대에 유행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한걸음 나아가 교정의서국 학자들이 혈연과 학연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대 교정의서국 교정 실무를 주도하였던 인물들에 있어 "傷寒"이란 이들의 정신세계를 관류한 시대정신이었으며, 이들에 의해 『傷寒論』이 이미 張仲景方의 대표로 선택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정의서국 학자들은 계획에 따라 『장중경방』의 대표로 『상한론』을 선택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편집 원칙을 『장중경방』에 적용함으로써 원자료에 대한 첨삭과 개정도 마다하지 않았음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錢超塵에 따르면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마친 『상한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고계충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것은 南朝 『七錄』의 『張仲景辨傷寒』 10권일 것이다. 권수와 편수가 고계충본과 완전히 부합한다.(10권 22편)

2. 중복되는 方을 삭제하였다.

3. 교감 문자와 조문 변석을 추가하였다.

4. 孫奇와 林億은 『千金翼方』을 교본으로 「厥陰篇」과 「附篇」을 합하고 관련 내용을 소주로 표기하였다.

5. 子目을 추가하였다. 證과 法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證의 수와 法의 수를 표명하였다. 小注에 合一十六法, 方十四首 등의 말을 추가하였다.

6. 112方을 法의 아래에 두었다.

7. 원서의 "先論後方" 구성과 달리 손사막 『천금방』의 체례에 따라 "方證同條"의 형식으로 수정하였다."[19]

이상과 같은 일련의 교정 상황은 교정의서국이 단순한 교정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교정 원칙에 입각하여 원서의 개편에도 간여한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래 편성과 달리 뒤에 있던 방약을 앞으로 끌어내어 방약 고유의 체계를 알 수 없게 만든 점, 「厥陰篇」 뒤에 붙은 「厥利嘔噦」을 『천금익방』을 모방하여 「厥陰篇」 안으로 집어넣은 것은 원서의 체례를 위배한 확실한 자의적인 편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證과 法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조문 배열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1.2 교정의서국의 『금궤옥함경』의 교정 배경

교정의서국이 이미 『張仲景方』의 정본으로 『상한론』을 선택하고도 별도로 『금궤옥함경』을 교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교정의서국 학자들이 『장중경방』 및 관련 의방서들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금궤옥함경』이 『상한론』과 상이한 전승을 지니는 이종 판본으로서 별도로 보존을 요하는 수준의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금궤옥함경』의 교정 보고서 격인 「校正金匱玉函經疏」에서 孫奇는 "仲景之書 …自晉以來, 傳之旣久, 方證訛謬, 辨論不倫, 歷代名醫雖學之, 不得彷佛. 惟孫思邈粗曉其旨, 亦不能修正之, 況其下者乎"[20]라고 하여 『상한론』 판본이 方과 證에 오류가 있고(方證訛謬) 배열순서가 고르지 못한(辨論不倫) 문제가 있는데 오래 되어 자신들의 힘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난제임을, 자신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名醫 孫思邈조차도 修正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토로하고 있다.

『금궤옥함경』을 교정한 까닭에 대하여 교정의서국에서는 "互相檢閱 而爲表裏"라고하여 『상한론』과 상호대조할 목적이라 하였지만, 저간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단지 『상한론』 판본의 불완전함을 보충하는 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진정한 까닭을 예의 추가 6종 의서에 포함된 『千金翼方』과 『脈經』을 통하여 엿볼 볼 수 있다. 『천금익방』에는 오늘날 소위 『당본상한론』으로 불리는 『상한론』 판

17) 錢超塵. 北宋校正醫書局校定傷寒論情況簡考. 山西中醫. 2013. 29(4). p.38.
18) 李景榮 等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27.
19) 錢超塵. 北宋校正醫書局校定傷寒論情況簡考. 山西中醫. 2013. 29(4). pp.38-40.
20)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p.7-8.

본이 수록되어 있으며, 『맥경』 또한 장중경의 "諸可不可" 관련 조문들이 대량 收載되어 있음을 상기해 보자.

한편 『금궤옥함경』에 『상한론』에 없는 조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금궤옥함경』의 내용이 동종 계열인 『당본』과 『맥경본』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完整하다는 사실은 『금궤옥함경』의 성립 연대를 적어도 『상한론』과 비슷한 시기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해된다. 西晉 시기 王叔和의 편찬으로 알려진 『맥경』의 장중경 조문이 『금궤옥함경』을 저본으로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금궤옥함경』 원서가 왕숙화 이전 즉 서진 시기에 『상한론』과 별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은 당연한 것이 된다.[21] 교정의서국 학자들은 『장중경방』 관련 서적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금궤옥함경』이 후대에 『상한론』에서 갈라진 판본이라기보다 서진 왕숙화 시기에 이미 『상한론』과 별도로 존재한 독립적인 전승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이 확실하다. 이것이 교정의서국이 『맥경』 및 『당본』과 함께 『금궤옥함경』을 보존한 까닭일 것이다.

1.3 교정의서국의 經方觀과 『金匱玉函經』

교정의서국은 『상한론』과 별도로 『금궤옥함경을』 보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金匱要略』을 편집, 간행하였다. 장중경 經方을 『상한론』과 『금궤요략』으로 나눈 것은 판본학적 검토를 통한 불가피한 결과라기보다는, 교정의서국 『張仲景方』 교정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서 傷寒과 雜病을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孫奇의 「傷寒論序」에 따르면 "張仲景爲傷寒卒病論合十六卷, 今世但傳傷寒論十卷, 雜病未見其書, 或諸家方中載其一二矣"[22]라고 하여, 이미 장중경의 雜病에 해당하는 經方으로서 『金匱要略』의 간행이 사전에 기획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다.

질병의 대분류체계로서 상한과 잡병을 待對하여, 『상한론』은 傷寒에 해당하고 『금궤요략』은 雜病에 해당한다고 나누어 보아 『상한론』을 傷寒에 국한시킨 관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잔영이 남아 장중경의 경방의 진면목을 오해하게 하는 폐단의 근거가 되고 있으므로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장중경 경방을 상한이라는 질병 범주에 예속시켜 해석하는 관점은 정확히 말하면 장중경 경방에 내재된 고유의 논리라기보다는 손사막으로 대표되는 후인의 관점이 덧씌워진 것이다.[23] 교정의서국의 학자들의 롤모델 역할을 한 손사막은 고래로 상한으로 명명된 급성 외감 질병 치료에 직면하여 유효성이 높은 처방들을 찾던 중에 『張仲景方』을 만나기에 이르렀다.[24] 전통적으로 구체적인 개별 질병 중심으로 구성된 의학지식체계에 익숙한 손사막의 입장에서 장중경 경방의 논리체계로서 "三陰三陽"은 그대로 수용되기 곤란한 미지의 무엇이었기에, 손사막은 기존 분과 중심의 분류 체계 안에 가장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傷寒 분야에 장중경 경방을 집어넣어 해석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손사막의 사고체계 안에서 『張仲景方』의 핵심 체계로서 三陰三陽은 오히려 상한이라는 질병 범주 안으로 포획되어 해석되

21) 『금궤옥함경』의 성립 시기에 대하여 교정의서국은 張仲景의 遺論을 王叔和가 撰次한 것으로 표기하였다. 근대의 章太炎은 「證治總例」의 四大說을 근거로 南朝人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여 한 때 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구 성과가 쌓이면서 기원이 南朝 이전으로 소급되어 張仲景에게서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상한론』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梁永宣. 《金匱玉函經·證治總例》當出自仲景. 中醫文獻雜志. 2007. 2. pp.25-27.)

22)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 傷寒論 趙開美原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8.

23) 장중경 경방을 "傷寒"이라고 하는 질병 분과에 예속하여 이해하는 관점은 당나라 손사막 이전 南朝의 인물인 陶弘景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도홍경은 『輔行訣』에서 "張仲景의 『傷寒論』"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外感天行은 經方(즉 湯液經法)의 治方에 大小의 二旦, 六神 등 처방이 있으니, 과거에 南陽 張機가 이 諸方에 의거하여 『傷寒論』 一部를 편성하였다. 치료가 명확하고 완전하여 후학들이 모두 이를 받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傷寒과 雜病을 구분하는 식의 논법이 南朝 시대에 이미 널리 유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여민경, 윤종화, 김기욱. 『輔行訣臟腑用藥法要』에 기재된 『傷寒雜病論』 방제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26(4). p.310.)

24) 李景榮 等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27. "嘗見太醫療傷寒, 惟大靑知母等諸冷藥投之, 極與仲景本意相反, 湯藥雖行, 百無一效"

기에 이르렀다.

교정의서국은 질병의 門類를 상한과 잡병의 양대 류로 구별하는 인식에 따라 『상한론』과 별도로 『금궤요략』을 편집,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정의서국이 『금궤요략』을 편집한 과정은 「校正金匱要略序」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상당히 작위적인 것으로서 엄밀한 판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통 시기 학자들 역시 이와 같은 『금궤요략』의 편성 배경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상한론』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인 것과 비하면 『금궤요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였다.[25] 상한과 잡병의 待對 논리에 의거하여 장중경의 『상한론』이 상한 一門을 專論한 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明代 이후 柯琴, 方有執 등의 반론에 직면한 이래 오늘날 劉渡舟와 같은 학자는 "『상한론』이라는 책을 어떤 하나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어느 하나의 처방을 사용하는 데에만 국한시키지 맙시다. 그것은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상한론』은 변증론치 서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26]라고 하여 『상한론』 이 외감 상한도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니 변증론치를 강조해서 볼 것을 강조하였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금궤옥함경』은 상한과 잡병을 分論하는 관점이 나타나지 않다는 점에서 장중경의 『상한론』을 辨證論治 일반에 대한 서적으로 보는 현대의 經方觀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장중경 경방의 전승에 있어 최소한 『상한론』과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궤옥함경』이 북송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쳐 정식으로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이래 실전되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책이 되어 버렸다가 현대에 홀연 나타났으니 『상한론』 유전사에 일대 아이러니요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2. 『금궤옥함경』의 학술 체계

2.1 三極의 생명철학논리

기존 『금궤옥함경』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보면, 그 조문의 가치는 일부 인정하지만 결론적으로 『상한론』의 미비함을 보완하는 정도로 그 의미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금궤옥함경』이 『상한론』에서 갈린 판본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승 계통을 보유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상한론』을 완전무결한 경전으로 인정하여 장중경 경방 연구의 표준으로 墨守하는 관점은 적어도 『금궤옥함경』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금궤옥함경』이 자체로 지니는 고유한 학술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금궤옥함경』의 개별 조문에 무비판적으로 『상한론』 해석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장관이대(張冠李戴)의 모순을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궤옥함경』을 펼쳐보면 『상한론』에 붙어있는 서문이 없으며 「傷寒例」도 없는 대신에 「證治總例」라는 글이 붙어 전서의 학술체계를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27] 「증치총례」의 전문을 통관하여 보건대, 두 번의 "問曰"을 고비로 삼단으로 나뉘는데, 中段은 특히 "張仲景曰"이란 인용을 세 번 거듭 반복함으로써 장중경의 辨證論治思想을 직접 기술한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前段은 고래로 전하는 생명과 질병의 본질에 대한 성인의 말씀을 기술함으로써 장중경의 辨證論治學이 상고 성인의 三極哲學에서 유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下段은 경방 임상에 있어 本草, 鍼灸를 운용하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하여 주로 『本草經』, 『內經』에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명하게 기술함으로써 『금궤옥함경』의 전승자들이 장중경의 經方學을 직접 계승하여 발휘한 내용을 부기하였다.[28]

25) 『張仲景方』 관련 텍스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한론』 전승 계통으로 판단되는 『金匱玉函要略方論』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기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雜病 관련 부분을 발췌하고 또 『千金』, 『外臺』 수록 처방 가운데 張仲景의 經方으로 추정되는 처방들을 추가함으로서 새롭게 『金匱要略』이라는 책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 金匱要略 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243.)

26) 정창현, 김혜일 옮김. 劉渡舟 傷寒論講義. 파주. 물고기숲. 2014. 총론.

27) 姜德有는 『금궤옥함경』에 '丸'자가 '圓'자로 되어 있는 것은 南宋人이 欽宗을 諱한 것으로 『금궤옥함경』은 남송인의 소작이란 전제 하에 孫思邈의 『천금방』 引文을 집록하여 편성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최종 필사 시기가 곧바로 성서 시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證治總例」의 완성도는 짜깁기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姜德有. 金匱玉函經·證治總例與孫思邈千金要方的關係. 中醫藥學報. 1985. 2. pp.13-15.)

28) 본문에 제시한 제1단 외에 제2단과 3단의 내용을 간추려

「증치총례」의 前段은 특히 장중경 經方學이 三極哲學에 입각하고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전서의 체계와 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실마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조금 길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번호는 필자가 붙인 것이다.

1-1 夫二儀之內, 惟人最靈, 稟天地精英之氣, 故與天地相參.

1-2 天一生水, 剛柔漸形, 是以人之是生, 先成其精, 腦髓旣足, 筋骨斯成, 皮堅毛長, 神舍於心.

1-3 頭圓法天, 足方象地, 兩目應日月, 九竅應九州, 四肢應四時, 十二節應十二月, 五藏應五陰, 六府應六律, 手十指應十干, 足十指莖垂應十二支, 三百六十節以應一世.

1-4 天有風雨, 人有喜怒, 天有雷電, 人有虛實, 萬物皆備, 乃名爲人. 服食五味, 以養其生, 味有所偏, 藏有所勝, 氣增而久, 疾病乃成.

1-5 諸經藏中, 金木水火土, 自相克賊, 地水火風, 復加相乘, 水行滅火, 土救其母, 迭爲勝負, 藏氣不精, 此爲害道. 不知經脈, 妄治諸經, 使氣血錯亂, 正氣受刑, 陰陽不和, 十死一生.

1-6 經云地水火風, 合和成人. 凡人火氣不調, 擧身蒸熱, 風氣不調, 全身强直, 諸毛孔閉塞, 水氣不調, 身體浮腫, 脹滿喘粗, 土氣不調, 四肢不擧, 言無音聲, 火去則身冷, 風止則氣絶, 水竭則無血, 土敗則身裂.

1-7 愚醫不思脈道, 反治其病, 使藏中金木水火土, 互相攻克, 如火熾然, 重加以油, 不可不愼, 又使經脈者如流水迅急, 能斷其源者, 此爲上也.

1-8 凡四氣合德, 四神安和, 人一氣不調, 百一病生, 四神動作, 四百四病, 同時俱起. 其有一百一病, 不治自愈, 一百一病, 須治而愈, 一百一病, 難治難愈, 一百一病, 眞死不治.[29]

1-1에서 1-3까지 첫째 내용은 생명을 말하였는데, 1-1은 인간이 天地人 三才의 원리로 이루어졌음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서를 시작하고 있다. 1-2는 "先成其精"에서 시작하여 "腦髓旣足, 筋骨斯成, 皮堅毛長"을 거쳐 "神舍於心"으로 마쳤으니, 인간이 精氣神을 받아 태어났음을 설명하였다. 1-3은 인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로도 그렇고, 눈, 구규와 사지, 십이절과 오장, 육부와 수십지, 족십지와 삼백육십절의 각 신체, 기관 등도 모두 圓方角의 三才원리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장중경의 생명관이 三極哲學에 근거한 것이며 그 핵심을 精氣神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問曰" 2곳과 "仲景曰" 3곳이 보인다.

"2. 問曰: 人隨土地, 得合陰陽, 稟食五穀, 隨時相將, 冬得溫室, 夏遂淸凉, 消渗調寒暑, 四季不遭傷, 恐懼畏無時, 忽然致不祥, 肺魄不能靜, 肝魂欲飛揚, 心神失所養, 脾腎亦乖方, 六府彷徨亂, 何以致安康, 非藥鍼不定, 盍自窮精詳? …… 凡欲和湯合藥灸刺之法, 宜應精思, 必通十二經脈, 三百六十孔穴. 榮衛氣行, 知病所在, 宜治之法, 不可不通, 蕩散丸藥, 鍼灸膏摩, 一如其法. 然愚醫不通十二經脈, 不知四時之經, 或用湯藥倒錯, 鍼灸失度, 順方治病, 更增他疾, 惟致滅亡. 故張仲景曰: 哀哉蒸民, 枉死者半, 可謂世無良醫, 爲其解釋 …… 張仲景曰, 若欲治疾, 當先以湯洗滌五藏六府, 開通經脈, 理導陰陽, 破散邪氣, 潤澤枯槁, 悅人皮膚, 益人氣血, 水能淨萬物, 故用湯也. 若四肢病久風冷發動, 此當用散, 散能逐邪風濕痺, 表裏移走, 居無常處者, 散當平之. 次當用丸, 丸能逐沈冷, 破積聚, 消諸堅症, 進飮食, 調營衛, 能參合而行之者, 可謂上工. 醫者意也, 聖道非不妙, 愚醫不能尋聖意之要妙, 恐嗟藥石不治者, 此爲謬也, 非聖人之過也. 又能尋膏煎摩之者, 亦古之例也. 虛則補之, 實則瀉之, 寒則散之, 熱則去之, 不虛不實, 以經取之. 虛者十補, 勿一瀉之, 實者瀉之, 虛實等者, 瀉勿太泄, 膏煎摩之, 勿使復也. 若虛者重瀉眞氣絶, 實者補之重其疾. 大熱之氣, 寒以取之, 盛熱之氣, 以寒發之, 又不須汗下而與汗下之者, 此爲逆也. 仲景曰, 不須汗而强與汗之者, 奪其津液, 令人枯渴而死. 又須汗而不與汗之者, 使諸毛孔閉塞, 令人悶絶而死. 又不須下而强與下之者, 令人開腸洞泄, 便溺不禁而死. 又須下而不與下之者, 令人心內懊惱, 脹滿煩亂, 浮腫而死. 又不須灸而强與灸之者, 令人火邪入腹, 干錯五藏, 重加其煩而死. 又須灸而不與灸之者, 使冷結重冰, 久而彌固, 氣上衝心, 無地消散, 病篤而死. 又須珍貴之藥, 非貧家野居所能立辦, 由是怨嗟以爲藥石無驗者, 此弗之思也.

3. 問曰: 凡和合湯藥, 治諸草石蟲獸, 用水升合, 消減之法則云何? 答曰: 凡草木有根莖枝葉皮毛花實, 諸石有軟鞕消走, 諸蟲有毛羽甲角頭眉骨足之屬, 有須燒煉炮炙, 生熟有定, 一如後法. 順方是福, 逆之者殃.....凡用鍼之法, 補瀉爲先, 呼吸應江漢, 補瀉應星斗, 經緯有法則, 陰陽不相干, 震爲陽氣始, 兌爲陰氣終, 坎爲太玄華, 坤爲太陰精. 欲補從卯南, 欲瀉從酉北, 鍼入因日明, 鍼出隨月光 …… 夫用灸之法 , 頭身腹背肩臂手足偃仰側其上中諸部, 皆是陰陽營衛經絡俞募孔穴, 各有所主. …… 凡點灸法, 皆取平正身體, 不得傾側寬縱縮狹也. …… 凡諸言壯數者, 皆以中平論也. …… 此要略說之, 非賢勿傳, 請秘而用之, 今以察色按脈, 辨病救疾, 可行合宜之法, 幷方藥共成八卷, 號爲金匱玉函經, 其篇目次第, 列於卷首."(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p.1-9.)

29)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p.7-8.

1-4에서 1-6까지 둘째 내용은 佛家의 四大說을 인용하여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질병 일반을 4범주로 개괄함으로 마쳤다. 셋째는 養生에 관한 내용이다. 의학을 맹신하여 愚醫로 하여금 反治하게 해서도 안되고, 邪術에 빠져 石藥으로 "重加以油"해서도 안 되며, 오직 생명의 이치를 바르게 알아 四神을 安和케 하는 것이 의학의 正道임을 역설하였다.

이상 「증치총례」 도입부에 표명되는 바 三極의 생명관, 四大의 발병관은 經方學의 철학과 논리, 그리고 장중경 辨證論治學의 주요 범주와 기술 층위를 논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최근 三極哲學은 중국 전통의 陰陽論과는 同源異流의 미묘한 차이가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한규성은 "양 주의의 중간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헤겔의 변증법에 있어서 정반합 중의 합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양 주의를 발생하게 한 근본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여 三極哲學이 서구의 이원론은 물론 兩漢 이후의 陰陽五行論 및 현대 중국의 辨證法과도 다른 양자의 모순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극복한 절대의 사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本體論的인 면에서 보면 "兩極을 부정하는 일원적인 시공조화론, 물심중화론, 원형구심론이다."라고 하여 一元, 心, 圓 등의 중심을 강조하였으니, 이는 삼극철학에서 「洪範九疇」의 皇極이나 孔子의 '中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음과 양을 대대하여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식과 대상이 하나되는 실천적 깨달음이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30] 「증치총례」 역시 인간생명의 시원으로서 "天一"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치료기술의 조화로운 활용을 뜻하는 "一如其法" 등에 이르기까지 삼극철학적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규성은 또 3의 논리에 있어 "理法性을 뜻하는 1의 움직임에 따라 2라는 相對性이 생기는데, 제3차의 변화에 의하여 음양이 서로 배합하는 삼각운동으로의 변화가 생기며 이에 이르러 형체를 갖춘 하나의 형상이 생긴다"[31]라고 하여 삼극철학의 과정적, 구조적 특성을 강조하였으니, 「증치총례」의 의학사상에서 역시 三數과정논리가 폭넓게 활용되어 醫哲學에서부터 辨證論治의 구체적 수행에 이르기까지 범주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 三陰三陽의 辨證論治체계

『강평본』 등을 근거로 장중경 경방에 삼음삼양이 도입된 시기를 후대의 일로 추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증치총례」는 삼음삼양이야말로 장중경의 작품이며, 삼음삼양체계의 수립이 곧 경방의 성립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증치총례」에 따르면 장중경 경방의 변증론치는 정확히 『難經』의 그것에 기반한 것이다. "知其逆順, 必察四難而明告之, 然愚醫不能如斯, 逆四難而生亂階者, 此爲誤也."[32]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四難"이란 『난경』의 제4난으로서 장중경 경방의 진단법이 정확히 『난경』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난경·제4난』은 脈으로 음양을 보는 診法에 대한 설명으로서, 구체적으로 脈의 浮沈으로 음양을 정의함을 강령으로 浮沈에 長短滑澁을 곁들임으로써 음양의 多寡를 三陰三陽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脈을 기준으로 形證을 三陰三陽으로 개괄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7난에서는 三陽三陰의 脈象을 언급하였으며 24난에서는 三陰三陽脈絶의 증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상은 정확히 『난경』이 삼음삼양으로 변증론치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3] 사실 삼음삼양범주

30) 한규성. 천부경과 도의사회. 서울. 동방문화. 1987. p.77.
31) 한규성. 천부경과 도의사회. 서울. 동방문화. 1987. p.128.

32) 魯兆麟 点校. 難經集注.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pp.6-8. "四難曰, 脈有陰陽之法, 何謂也. 然, 呼出心與肺, 吸入腎與肝, 呼吸之間, 脾受穀味也, 其脈在中. 浮者陽也, 沉者陰也, 故曰陰陽也. 心肺俱浮, 何以別之. 然, 浮而大散者, 心也, 浮而短澁者, 肺也. 腎肝俱沈, 何以別之. 然, 牢長者, 肝也, 按之濡, 擧指來實者, 腎也. 是陰陽之法也. 脈有一陰一陽, 一陰二陽, 一陰三陽, 有一陽一陰, 一陽二陰, 一陽三陰. 如此之言, 寸口有六脈俱動耶. 然, 此言者, 非有六脈俱動也, 謂浮, 沈, 長, 短, 滑, 澁也. 浮者陽也, 滑者陽也, 長者陽也, 沈者陰也, 短者陰也, 澁者陰也. 所謂一陰一陽者, 謂脈來沈而滑也, 一陰二陽者, 謂脈來沈滑而長也, 一陰三陽者, 謂脈來浮滑而長, 時一沈也. 所謂一陽一陰者, 謂脈來浮而澁也. 一陽二陰者, 謂脈來長而沈澁也, 一陽三陰者, 謂脈來沈澁而短, 時一浮也. 各以其經所在名病逆順也."

33) 金人 王好古는 張仲景의 三陰三陽이 주로 外感을 대상으

Table 3. The medical perspective contained in 'Zhengzhizongli'(「證治總例」). 증치총례의 의학관.

	주제		관련 내용	출전	원문	
의철학	생명론		身形藏府	經曰	夫二儀之內~	夫二儀之內~
	질병론		四大發病			天有風雨~
	치료론		養生爲先			愚醫不思脈道~
經方 원리	진단 목적		診斷四象	難經	問曰人隨土地~	問曰人隨土地~
	진단 원칙		陰陽診法	難經		夫診法常以
	치료 원칙	診治 일치	五藏虛實子母補瀉原理	難經		肝病治肺~
			男女一致(婦人病重視)			凡婦人之病~
		藥鍼 一致	藥鍼一如其法	張仲景曰		凡欲和湯合藥灸刺~
		湯藥 중시 針灸 병용	湯藥 우선, 丸散 병용	張仲景曰		張仲景曰~
		真氣 중시 汗下 겸용	針刺 병행, 勿瀉真氣	難經		虛則補之~
			湯藥 汗下愼用	仲景曰		又不須汗下
鍼藥 실용	본초 활용		本草總論	本草	問曰凡和合湯藥~	問曰凡和合湯藥~
	침구 활용		用鍼法	鍼經, 難經		凡用鍼之法~
			用灸法	鍼經		夫用灸之法~
結語	非賢勿傳					此要略說之~34)

에 따른 형증분류는 이미 『素問·熱論』 등의 편에 보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素問·熱論』 의 삼음삼양은 針刺라고 하는 제한된 치료기술과 경락학적 모델에 기반한 진단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한된 형증체계이므로 방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난경』은 침자와 방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단논리를 계발함으로써 변증론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임상에서 경험 축적은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바로 이 부분이 장중경의 得力處로서, 장중경은 기존 『湯液』의 지식을 『난경』의 변증론치 논리를 적용하여 삼음삼양 체계로 재구성하는 한편 이를 임상현장에서 실증, 보완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여 그의 경방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작성한 표(Table 3.)의 「증치총례」의 醫學觀 가운데 장중경의 經方原理 부분을 살펴보면 『난경·4난』의 陰陽診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장중경의 실행 원칙으로서 "診治 一致", "藥鍼

로 立論된 것임에 비해 『難經』의 三陰三陽은 雜病을 중심으로 立論된 것이기에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仲景先太陽, 次陽明, 後少陽, 自無形傳有形, 從外而之內者也. 仲景之所言, 天令而暴至者也. 難經先少陽, 此陽明, 後太陽, 自有形傳無形, 從內之外者也. 故難經之言, 言雜病而久疾者也."(盛曾秀 主編. 王好古 著. 王好古醫學全書·此事難知.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41.). 王好古가 말하는 『難經』은 7난에서 "七難曰, 經言少陽之至, 乍大乍小, 乍短乍長, 陽明之至, 浮大而短, 太陽之至, 洪大而長, 太陰之至, 緊大而長, 少陰之至, 緊細而微, 厥陰之至, 沈短而敦. 此六者, 是平脈耶. 將病脈耶."라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34) p.9의 「證治總例」 원문1과 와 각주 29의 「證治總例」 원문 2, 3을 참고할 것.

Table 4. The categorization of formulas in the "Jinkuiyuhanjing"(『金匱玉函經』). 금궤옥함경 방약의 계열들.

	陽病類	陰病類
表藥	계지탕류, 갈근탕류, 마황탕류	황련아교탕, 황련탕, 도화탕, 오수유탕, 저부탕, 길경탕, 고주탕, 반하산
表裏間藥	시호탕류, 복령탕류, 감초탕류, 치자탕류, 함흉탕류, 사심탕류	백통탕, 진무탕, 오매환, 건강황금황련인삼탕, 백두옹탕, 황금인삼탕, 황금탕
裏藥	백호탕류, 승기탕류, 저령탕, 저당탕류, 인진호탕	이중환급탕, 사역산, 사역탕류, 당귀사역탕류, 소곤산, 지실치자시탕, 모려택사산, 죽엽석고탕, 맥문동탕35)

一致", "湯藥 重視, 鍼灸 倂用", "眞氣 重視, 汗下 倂用"의 기준들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診과 治, 藥과 鍼, 湯藥과 鍼灸, 補虛와 瀉實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음양의 논리이고, 구분하는 가운데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一致를 추구하는 것이 또한 三才의 종합원리이다.

진단기법과 치료기술의 논리형식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변증론치의 대전제이다. 두 체계가 다른 논리에 기반하여 있다면, 치료기술의 효과와 진단기법의 관련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없으므로 치료기술의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난경』침법에서 五藏虛實子母補瀉를 중시하였고 장중경도 이를 계승하여 診治一致의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用藥은 물론 針刺에서도 치료논리가 진단과 일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금궤옥함경』은『상한론』과 달리 뒤에 方藥을 부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방 전체를 변증론치의 논리체계에 부합하도록 계열화한 것이다. 방약의 순서는 계지탕에서 맥문동탕까지『금궤옥함경·권제칠·방약』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음병류 처방들을 기준으로 볼 때 삼양삼음형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라기보다는 표에서 보이듯이 表, 裏, 表裏間이라고 하는 확장된 버전의 三才범주를 적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다. 이와 같이 분류한 까닭은 장중경의 변증론치 체계가 정확히 삼음삼양형증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소위 잡병의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된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한론』은 손사막의 예에 따라『금궤옥함경』의 先論後方과 달리 方證同條의 형식으로 원서를 改撰하였기에『금궤옥함경』과 같은 방약 고유의 체계를 살펴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2.3 四大의 질병분류체계

「證治總例」에는 이색적으로 "人一氣不調, 百一病生, 四神動作, 四百四病, 同時俱起. 其有一百一病, 不治自愈, 一百一病, 須治而愈, 一百一病, 難治難愈, 一百一病, 眞死不治."36)라고 하여 佛家의 四大說이 인용되어 있다. 이 四大說은 장중경 경방학의 立論 대상으로서 질병의 범주와 분류의 기준을 밝힌 내용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四百四病이 질병의 총체라면, 四大는 질병 일반을 분류하는 최상위 범주가 되며, 구체적인 질병을 地病類, 水病類, 火病類, 風病類의 4종으로 나누는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 장중경 경방학의 입론 범주 문제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교정의서국의 입장을 지지하여 傷寒에 한정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가 明代를 거쳐 현대로 오면서 질병 일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 주류를 점하고 있음을 상기해 보자. 이 문제에 대하여『금궤옥함경·증치총례』의 입장은 어떠한가? 곧바로『금궤옥함경』이 질병 일반 404병 전체를 대상으로 입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막연한 추측이나 논리적 추론만으로는 입증될 수 없으며,「증치총례」에서 제시한 4대의 기

35)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p.111-138.

36)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2.

Table 5. Four major factors[四大] category and classifications of diseases. 사대범주와 질병 분류.

	氣血	病類[37]	假合[38]	盛候[39]	不調[40]	止息[41]
火	神	火病類	溫煖燥熱	氣如雲	擧身蒸熱	火去則身冷
風	氣	風病類	靈明活動	智如神	全身强直, 諸毛孔閉塞	風止則氣絶,
水	血	水病類(血病類)	涕精血液	精如玉	身體浮腫, 脹滿喘粗	水竭則無血,
地	精	精病類	髮齒骨甲	骨如金	四肢不擧, 言無音聲	土敗則身裂.

준을 장중경의 입론 대상이 된 병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금궤옥함경』에 등장하는 병명을 살펴보면, 傷寒과 中風에서부터 痙濕喝, 溫病, 風溫과 같은 外感類도 있고 結胸, 黃疸, 痞滿, 消渴 등과 같은 內傷類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들 병들에 地水火風의 범주화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위 표(Table 5.)를 참작하여 장중경의 병명을 분류하여 보도록 하겠다. 먼저 풍병류의 全身强直, 毛孔閉塞은 상한이나 중풍에서 보이는 頭項强痛, 汗出 등의 外感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火病類는 전신이 蒸熱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발열을 특징으로 하는 후인이 말하는 溫暑類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水病類는 浮腫, 脹滿, 喘息 등을 거론하였으니 장중경의 結胸, 水氣, 痞滿, 消渴, 黃疸 등의 병을 연관지을 수 있다. 精病類의 四肢不擧, 言無音聲, 身熱 등의 證은 가장 난해한데 精의 손상으로 齒髮骨甲에 문제가 오는 병으로 생각하면 虛勞와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장중경의 병들을 사대 범주에 분속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표(Table 6.)를 얻을 수 있다.

장중경의 熱病類에 해당하는 유형은 후대에 溫病으로 분화, 독립되는 유형과 관련이 있으며, 水病類와 精病類는 후대에 內傷雜病類로 분화, 독립하는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후대의 『醫學入門』이나 온병학 서적들과 비교하여 보면 열병에 대한 장중경의 변증론치 지식은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장중경의 血病類와 精病類, 즉 『醫學入門』 분류로는 내상잡병에 해당하는 변증론치 정보들은 틀을 제공한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중경의 辨證論治學은 이론적으로 四百四病의 질병 일반을 대상으로 입론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변증론치 지식에 있어서는 風病類 즉 상한, 중풍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내상, 잡병, 온병에 대해서는 일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역대로 많은 학자들이 장중경 변증론치학의

37)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2. "經云地水火風, 合和成人."

38) 진주표 주석. 허준 지음.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202. "○釋氏論曰, 地水火風, 和合成人, 筋骨肌肉, 皆屬乎地, 精血津液, 皆屬乎水, 呼吸溫煖, 皆屬乎火, 靈明活動, 皆屬乎風, 是以風止則氣絶, 火去則身冷, 水竭則無血, 土散則身裂. ○上陽子曰, 髮齒骨甲, 假之于地, 涕精血液, 假之于水, 溫煖燥熱, 假之于火, 靈明活動, 假之于風, 四大假合而生也."

39) 진주표 주석. 허준 지음.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202. "上陽子曰, 髮齒骨甲, 假之于地, 涕精血液, 假之于水, 溫煖燥熱, 假之于火, 靈明活動, 假之于風, 四大假合而生也. 地之盛也骨如金, 水之盛也精如玉, 火之盛也氣如雲, 風之盛也智如神."

40)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2. "經云地水火風, 合和成人. 凡人火氣不調, 擧身蒸熱, 風氣不調, 全身强直, 諸毛孔閉塞, 水氣不調, 身體浮腫, 脹滿喘粗, 土氣不調, 四肢不擧, 言無音聲, 火去則身冷, 風止則氣絶, 水竭則無血, 土敗則身裂."

41)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2. "經云地水火風, 合和成人. 凡人火氣不調, 擧身蒸熱, 風氣不調, 全身强直, 諸毛孔閉塞, 水氣不調, 身體浮腫, 脹滿喘粗, 土氣不調, 四肢不擧, 言無音聲, 火去則身冷, 風止則氣絶, 水竭則無血, 土敗則身裂.

Table 6. Relations between Zhongjing(仲景)'s syndrome differentiation and gener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based on four major factors[四大] category. 사대범주를 통해 살펴본 중경 변증체계의 질병 일반과의 관계.

	四大 범주	仲景 병명	전통 분류	삼음삼양 분류	입문 분류
火	熱病類	溫病, 暑濕, 厥利嘔噦, 陰陽易 등	外感	篇外 異形證	河澗 溫暑
風	風病類	傷寒, 中風	傷寒	篇內 正形證	仲景 傷寒
水	水病類(血病類)	結胸, 水氣, 痞滿, 衄血, 黃疸, 消渴	內傷	篇內 別形證	東垣 內傷 丹溪 雜病
地	精病類	虛勞	雜病	篇內 別形證	

보충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사실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오늘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변증론치 지식의 확장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지하는 사실이다. 요컨대 장중경의 변증론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질병을 해석하고 치료 방법을 도출하는 모델로 입론된 것임이 「증치총례」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4. 삼단 기술형식

장중경의 조문들은 기술 형식에 있어서도 삼음삼양 변증론치체계와의 거리 관계에 따라 삼층위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첫째는 "太陽病" 등으로 명명되는, 三陰三陽證治 내부로 완전하게 포섭된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기존『湯液』의 지식을 삼음삼양논법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로 보이는데, 그 證治에 대해 역사적으로 실증된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성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아마 좁은 의미에서의 삼음삼양증치로서 장중경 스스로가 생각한 經方일 것이다. 둘째는 三陰三陽證治 안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았으나 삼음삼양증치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三陰三陽病形證 내에서 유사한 삼음삼양증치에 부속되어 배열되는 경우이다. 소위 雜病이라 불리는 結胸, 痞氣, 黃疸, 熱入血室 등 많은 병증들이 여기에 속한다. 예컨대 結胸의 경우 처음 발병할 때 太陽病처럼 보이기도 하고 太陽少陽幷病처럼 보이기도 하여 太陽病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結胸 고유의 형증과 고유의 병원인 水氣를 갖추고 있어 기존 太陽形證과 구별된다. 또 이들은 기존 太陽病 治法을 적용하여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오므로 확실히 기존 三陰三陽證治와는 구별을 요한다. 劉渡舟에 따르면 기존 삼음삼양증치 지식을 기준으로 치료하였는데도 誤治가 발생한 경우가 變證으로, 장중경의 책에 이러한 變證 관련 내용이 1/3이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장중경의 책 가운데 1/3 정도는 기존 삼음삼양증치를 연역하여 새롭게 획득한 증치 지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존 삼음삼양형증치법과 비교하면 경험이 부족하여 유효성,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중경은 상당한 수준의 확신이 있었기에 이를 삼음삼양병편 내로 편입시켰으며 이들도 후인의 오랜 검증을 거치며 대다수 경방의 지위가 확인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장중경이 직접 구성한 경방지식에 해당한다고 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삼음삼양변증체계 안으로 포섭되지 않으며 그 외곽에 배열되어 있다. 이런 뜻에서 이들을 총칭하여 雜病이라 부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삼음삼양증치체계 안으로 귀속될 수 없는 새롭게 인식된 形證으로서 그 형증의 전모를 밝히지 못하였거나 효율적이고 안전한 치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증의 존재 가능성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삼음삼양병편의 밖으로 그 외곽에 배열하였다. 예컨대 太陽病形證 앞의 痙濕喝形證, 厥陰病形證 뒤의 厥利嘔噦, 霍亂, 陰陽易, 差後勞復 등이 이에 해당한다.[42] 이러한 예들에 대해서는 일

부 치법을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대해 치법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에 형증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숙제로 남겼다.

그 외 『금궤옥함경』은 『상한론』에 비하면 훨씬 많은 분량의 조문들을 「諸可不可」 등 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은 일종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지식으로, 汗吐下로 대표되는 攻邪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치법에 익숙한 의사들을 위한 장중경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장중경은 기존 공사 중심의 치법을 남용함에 따라 正氣를 상하여 인명이 훼손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고,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기존 치법 중심으로 재배열한 버전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諸可篇」에서는 기존 치법이 유효한 경우를 보임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해 주었으며, 「諸不可篇」은 부작용 사례를 자세히 열거함으로써 공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43]

Table 7. Three category of syndrome differentiation and treatment of the "Jinkuiyuhanjing"(『金匱玉函經』). 금궤옥함경 변증론치체계의 3범주.

三陰三陽 변증 범주	四大 질병 범주
三陰三陽病 正形證	傷寒 中風
三陰三陽篇內 附屬形證	溫病 結胸 痞氣 黃疸 熱入血室 畜血 等
三陰三陽病 外形證	痙濕喝 厥利嘔噦 霍亂 陰陽易 等

이상의 기술적 특징은 물론 『상한론』을 통해서도 대체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상한론』에는 기술 층위상 3단계에 해당하여 『금궤옥함경』에서 「厥陰病篇」 외곽에 별도 편집된 「厥利嘔噦」이 오히려 1단계의 삼음삼양병 정형증인 「궐음병편」 안에 혼입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厥陰病의 정체, 나아가 六經病 전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정의서국 역시 『상한론』 교정 당시 손사막의 예를 따라 "厥利嘔噦"을 「厥陰病篇」 내로 편입하면서도, 厥陰病과 厥利嘔噦을 별도로 인식하는 관점에 대해 알았기에 "辨厥陰病脈證幷治"의 표제 뒤에 소자로 "厥利嘔噦附"라고 주석을 붙여 놓았다. 그러나 후에 成無己 『注解傷寒論』에서 이 소자 주석이 삭제됨에 따라 "厥利嘔噦"은 마침내 厥陰病과 하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3. 『동의보감』과 『금궤옥함경』

「證治總例」를 대표하는 精氣神의 三才와 地水火風의 四大는 정확하게 『東醫寶鑑·身形門』 서두에 인용되어 『동의보감』 의철학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精氣神 三才說에 대해서는 道家와 공유한 내용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대로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佛家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四大說의 의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다. 「증치총례」의 發病 四大說은 『內經』의 內傷外感을 나누는 논리와도 다르고, 『상한론』의 총론인 「傷寒例」에서 外感 위주로 설명한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생경한 것이다.[44] 「증치총례」는 의학의 고유한 논리를 버리고 왜 불가의 "四大"를 인용하여 발병을 설명해야만 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단서가 17세기에 조선 내의원 의관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동의보감』의 四大說은 「증치총례」의 그것을 인용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증치총례」와 동일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궤옥함경』과의 관련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의 四大說은 전서의 첫 글인 "身形藏府圖"의 설명에서 "皆稟四大五常, 假合成形."[45]이라 하여 바로

42)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10. "太陽病, 痙濕喝三種, 宜應別論, 以爲與傷寒相似, 故此見之"

43)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66. "夫以爲疾病至急, 倉卒尋按, 要者難得, 故重集諸可與不可方治. 比之三陰三陽篇中, 此易見也, 又時有不止是三陰三陽, 出在諸可與不可中也."

44) 『傷寒論·傷寒例』에서 "凡傷寒之病, 多從風寒得之."라고 하여 傷寒이라는 外感 一證에 국한시켰고 內傷과의 관련을 언급하더라도 "冬時嚴寒, 萬類深藏, 君子固密, 則不傷於寒, 觸冒之者. 乃名傷寒耳."라고 하여 양기가 고밀하지 못하다는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 傷寒論 趙開美原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35.)

45) 진주표 주석. 허준 지음.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p.199-200. "孫眞人曰, 天地之內, 以人爲貴, 頭圓象天, 足方象地,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行,

나타난다. 『동의보감』 "身形藏府圖"의 해설은 "孫眞人" 즉 孫思邈을 인용하였다고 표지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千金要方·治病略例』의 글은 천인상응의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보감』과 주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논리와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의보감』은 "孫眞人曰, 天地之內, 以人爲貴, 頭圓象天, 足方象地, 天有四時, 人有四肢"라고 하여 천지인 三極논리를 피력하고 있는데 비하여, 『천금요방』에서는 "夫二儀之內, 陰陽之中, 惟人最貴. 人者稟受天地中和之氣, 法律禮樂, 莫不由人."[46]이라 하여 전형적인 陰陽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문장이 『靈樞·邪客』에서 인용되었으나 "孫眞人"으로 誤記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靈樞·邪客』을 보면, "天圓地方, 人頭圓足方, 以應之.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47]라 하여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靈樞·邪客』에서는 "人與天地相應也"이라고 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身形藏府圖"에서 "四大五常, 假合成形"이라고 한 결론과는 논리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四大發病說은 주로 佛經에 보이는 내용으로 일부 道家 서적들에서 인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정통 의서에서 차용한 경우는 『동의보감』이 희귀한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48] 그 내용 가운데 「증치총례」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동의보감』은 "四大成形"이라는 주석을 통하여 "四大"의 논리를 불가에서 차용하였음을 직접 밝힌데 이어, 上陽子의 글을 인용하여 하필 왜 四大成形의 說로 全書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上陽子"에 따르면 佛家의 四大는 醫家의 精氣神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허준에 따르면 불가에 사대설이 있고 유가에 五常說(즉 五行)이 있어 病理와 性理를 추구하는 바와 같이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精氣神을 두어 생리를 추구함으로써 의학을 생명의 본체로부터 개시하겠다는 논리가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이 사대설을 인용하는 목적이 생명의 본체가 精氣神 三寶임을 이끌어 내는데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증치총례」의 의학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동의보감·신형문』이 참고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된다.[49]

허준의 『동의보감』과 『금궤옥함경』의 관련을 엿볼 수 있는 증거들이 더 있다. 『東醫寶鑑·歷代醫方』에 "傷寒論 金匱玉函經 以上後漢張機所著 自仲景 官至長沙太守"라고 하여 『상한론』과 함께 『金匱玉函經』을 인용서목의 하나로 추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東醫寶鑑·歷代醫方』에 대해서는 여기에 등재된 서목들이 일반적인 의미의 인용서목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김홍균은 『의학입문·역대의학성씨』의 영향을 받아 『의림촬요·역대의학성씨』에 이어 『동의보감·역대의방』이 나왔는데, 본문과 서목을 대조하여 볼 때 『동의보감·역대의방』 86권은 모두 참고도서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일종의 의방서의 연대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50] 그러나 『동의보감·역대의방』을 살펴보면 『의학입문』이나 『의림촬요』에도 없으나 새로이 추가된 3종 서목 가운데 『금궤옥함경』이 있는 것을 보면, 완전히 서목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김홍균 역시 『금궤옥함경』이 추가된 이유에 대하여 "『금궤옥함경』은 『상한론』 고전본의 하나로서 1066년 북송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쳐서 송본의 『상한론』과 동시에 간행된 것이다. 아마도 이 때의 간본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장중경의 『상한론』과 함

人有五藏, 天有六極, 人有六府, 天有八風, 人有八節, 天有九星, 人有九竅, 天有十二時, 人有十二經脈, 天有二十四氣, 人有二十四兪, 天有三百六十吾度, 人有三百六十五骨節. 天有日月, 人有眼目, 天有晝夜, 人有寤寐, 天有雷電, 人有喜怒, 天有雨露, 人有涕泣, 天有陰陽, 人有寒熱, 地有泉水, 人有血脈, 地有草木, 人有毛髮, 地有金石, 人有牙齒, 皆稟四大五常, 假合成形."

46) 李景榮 校釋.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5.

47) 홍원식 편.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8.

48) 김진무. 불교의 사대설과 한의학의 수용에 관한 고찰. 석림. 2005. 39. p.235.

49) 『동의보감』에서 精氣神이 머무르는 기관을 오장육부라 하여 신체의 주체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內景과 外形을 통합하여 하나의 인체, 인간의 생명현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불교의 四大說이다.(이기운. 동의보감의 사대설 수용과 삼교회통 사상. 불교학보. 2009. 53. p.291.)

50) 김홍균. 『의림촬요』의 「역대의학성씨」에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2000. 13(2). p.116.

께 『금궤옥함경』을 삽입한 것 같다."라고 하여 여기의 『금궤옥함경』이 장중경의 『금궤옥함경』을 지칭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51]

혹자는 허준이 『금궤요략』을 『금궤옥함경』으로 오인하는 우를 범한 것이며, 18세기에 중국에서 발견되었다가 실전되었다는 『금궤옥함경』을 17세기 조선 사람인 허준이 보았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나아가 『동의보감』 본문에서 『金匱玉函經』 引文을 입증할 수 있겠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다.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 『東醫寶鑑·用藥·汗下之戒』에서 "〇不當汗而妄汗之 奪其津液 枯槁而死 不當下而强下之 令人開腸洞泄 便尿不禁而死(仲景)."라고 한 것은 『금궤옥함경·증치총례』의 "仲景曰, 不須汗而强與汗之者, 奪其津液, 令人枯竭而死. 又須汗而不與汗之者, 使諸毛孔閉塞, 令人悶絶而死. 又不須下而强與下之者, 令人開腸洞泄, 便溺不禁而死. 又須下而不與下之者, 令人心內懊惱, 脹滿煩亂, 浮腫而死."[52]의 내용 가운데 관련 부분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사막 『千金要方·診候』에도 유사한 문장이 존재함을 근거로 『동의보감』은 실제로 『천금요방』에 인용된 "仲景"의 글을 재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관련 부분을 상세히 대조하여 보도록 하겠다.

'奪'자(금궤옥함경)에 대하여 '出'자(천금요방)와 '奪'자(동의보감)를 서로 바꿔 쓸 수 있고, '竭'자(금궤옥함경)에 대하여 '槁'자(동의보감)와 '竭'자(천금요방)을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이 만으로 어느 것을 따랐는지 변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의보감』에는 『천금요방』의 "不禁"에 비하여 "便尿" 2글자가 추가되어 정확하게 『금궤옥함경』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건대, 『동의보감』이 『금궤옥함경』의 원문 또는 최소한 그 일문을 보았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것도 허준이 추정하여 보입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글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우연치고는 이상한 우연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동의보감』과 『금궤옥함경』의 관련은 이 논고에서 제기한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인정됨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내용의 상호 대조를 통하여 『금궤옥함경』의 생경한 의학사상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삼아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Table 8. A comparison of a quotation in Donguibogam and Qianjinyaofang. 동의보감과 천금요방의 인용문 비교.

인용	금궤옥함경	동의보감	천금요방
원문	不須汗而强與汗之者奪其津液令人枯竭而死 不須下而强與下之者令人開腸洞泄 便溺不禁而死[53]	不當汗而妄汗之 奪其津液 枯槁而死 不當下 而强下之 令人開腸洞泄 便尿不禁而死[54]	不須汗而强汗之者 出其津液枯竭而死 又不須下而强下之者 令人開腸洞泄 不禁而死[55]
출전	仲景曰	仲景	張仲景曰

필자는 『동의보감』을 보면서 「역대의방」에 분명히 『傷寒論』이 있는데 본문에는 장중경의 方證을 싸잡아 "仲景"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약간의 의문을 느끼곤 하였다. 그런데 지금, 「역대의방」에 『상한론』과 함께 나란히 『금궤옥함경』이 있는데다가, 본문에서 『상한론』과 『금궤요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仲景"으로 통일하여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 문득 생각이 놓이고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한론』과 『금궤옥함경』을 두 독립된 전승으로 인정하고, 두 책을 기반으로 『금궤요략』이나 여타 방서 가운데 장중경의 체계와 논리에 근접하고 유효성이 인

51) 김홍균. 『의림촬요』의 「역대의학성씨」에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2000. 13(2). p.125, 126.
52)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5.
53)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p.5.
54) 진주표 주석. 허준 지음.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990.
55) 李景榮 校釋.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6.

정되는 것들을 "중경"의 경방으로 간주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장중경방』을 바라보는 허준의 기본적인 관점은 아니었을까?

이상을 통하여 『금궤옥함경』의 학술과 『동의보감』의 학술과의 연관을 기반으로 『금궤옥함경』의 학술사상의 논리와 근거에 대하여 거칠게나마 검토하여 보았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봄으로써 향후 『동의보감』과 장중경방의 관련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하나의 교두보를 삼고자 한다.

Ⅲ. 결 론

이상 북송 교정의서국의 교정에 의한 성서 배경을 필두로 「증치총례」 등에 나타난 학술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보감』과의 연관에 대한 검토에 이르기까지 『금궤옥함경』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모두 마쳤다. 이제 새로이 『금궤옥함경』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을 요약함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발견들이 향후 장중경 경방 연구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개진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북송 교정의서국이 『상한론』과 함께 그 별본인 『금궤옥함경』을 동시에 교정, 발간한 사실은 『금궤옥함경』의 판본적 가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북송 교정의서국은 『장중경방』 관련 서적들을 조사,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궤옥함경』, 『맥경본』, 『당본』 등 『장중경방』 관련 서적들 가운데 『상한론』과는 이질적인 별도의 판본 계통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금궤옥함경』에 대해서는 『상한론』의 판본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로 교정,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북송 교정의서국이 『금궤옥함경』과 함께 그 동종 판본인 『당본』과 『맥경본』을 동시에 교정, 간행하여 상호 대조토록 한 사실은 『금궤옥함경』의 판본적 가치에 대한 교정의서국의 신중한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다.

『금궤옥함경』은 『상한론』과 비교하여 보면 세세한 조문의 배열, 조문의 내용상의 개별척 차이에 앞서 의학적 개념과 행위를 인도하는 논리와 체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그 서문 격인 「증치총례」와 전서의 체례를 통하여 입증된다. 『금궤옥함경』이 기반한 철학적 배경은 『상한론』이 기반한 전형적인 음양오행론과는 다른 삼극철학으로서 『금궤옥함경』의 변증론치 의학은 세부적으로, 精氣神으로 대표되는 삼극철학논리, 삼음삼양으로 대표되는 음양변증체계, 地水火風으로 대표되는 질병범주체계, 삼층위로 구분되는 기술형식 등이 종횡으로 엮여 체계적 논리그물망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금궤옥함경』의 개별 조문들이 『상한론』과 조문 배열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 나타내는 차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상한론』 해석의 관점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금궤옥함경』이 『상한론』과는 다른 철학적 입장에 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좀 더 『금궤옥함경』 고유의 철학과 논리에 입각하여 『금궤옥함경』 조문의 세부적인 차이들을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거시적인 수준의 『금궤옥함경』의 철학사상이 미시적인 조문 수준에서의 논리와 어떻게 상응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수준의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상한론』과 개별 내용의 차이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취사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동의보감』의 의학의 핵심으로서 精氣神과 四大발병범주와 『금궤옥함경』의 관련에 대한 본고의 입장은 다분히 시론적인 성격의 것으로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삼극철학의 체계와 논리가 『금궤옥함경』으로 대표되는 초기 한의학의 정립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후대 의학 전승에 있어 삼극철학적 입장이 어떻게 계승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는 이 연구에서 보여준 『동의보감·신형문』 일부와 『금궤옥함경·증치총례』의 문장을 비교하는 단편적 수준의 연구로 결코 입증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보다 광범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주제임을 밝히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References

1. Li SB ed.. Jinkuiyuhanjing. Beijing. Xueyuan Publishing. 2005.
   李順保 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園出版社. 2005.
2. Qian CC. Yingyinjinkuiyuhanjingxiaozhukaozheng. Beijing. Xueyuan Publishing. 2015.
   錢超塵 著. 影印金匱玉函經校注考證. 北京. 學苑出版社. 2005.
3. Subcommittee of the Publication of Shanghanlun and Jinkuiyaolue. Dengzhen Edition and Wuqian Edition of Shanghanlun. Tokyo. The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 2009.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 金匱要略 鄧珍本·吳謙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4. Liu CH ed.. Chen M annot.. Jinkuiyuhanjing. Beijing. Beijing Science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05.
   柳長華 主編. 陳明 點校. 金匱玉函經.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5.
5. Li SB ed.. Shanghanlunbanbendaquan. Beijing. Xueyuan Publishing. 2005.
   李順保 編著.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園出版社. 2000.
6. Wang QG, Chen M, Li YH ed.. Liu DZ original work. Liuduzhoushanghanlunjiangkao.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8.
   王慶國, 陳明, 李宇航 整理. 劉渡舟 著錄. 劉渡舟傷寒論講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7. Jeong CH, Kim HI trans.. Liuduzhoushanghanlunjiangyi. Paju. Fishwood Books. 2014.
   정창현, 김혜일 옮김. 劉渡舟傷寒論講義. 파주. 물고기숲. 2014.
8. Subcommittee of the Publication of Shanghanlun and Jinkuiyaolue. Original Zhaokaimei Edition of Shanghanlun. Tokyo. The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 2009.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 傷寒論 趙開美原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9. Qian CC. Shanghanlunwenxiantongkao. Beijing. Xueyuan Publishing. 2000.
   錢超塵 著.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園出版社. 2000.
10. Kim YO intro. 10 Volumes of the Zhujieshanghanlun. Seoul. Tongnamu Publishing. 1996.
    김용옥 해제. 注解傷寒論十卷. 서울. 통나무. 1996.
11. Jin JP annot.. Heo Jun original work. Newly Added and Translated Donguibogam. Seoul. Bubin Publishing. 2012.
    진주표 주석. 허준 지음.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12. Sheng ZX ed.. Wang HG original work. Wanghaoguyixuequanshu·Cishinanzhi. Beijing. China Traditional China Medicine Publisher. 2004.
    盛曾秀 主編. 王好古 著. 王好古醫學全書·此事難知.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13. Hong WS ed.. Jeonggyohwangjenaegyeong 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홍원식 편.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14. Lu ZL ed.. Nanjingjizhu. Shenyang. Liaoning Science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99.
    魯兆麟 点校. 難經集注.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15. Li JR ed.. Sun SM original work. Beijiqianjinyaofangxiaosh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8.
李景榮 校釋.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6. Li JR ed.. Qianjinyifangxiaosh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8.
李景榮 等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7. Han KS. Cheonbukyeong and Taoist Society. Seoul. Dongbangmunhwa Publishing. 1987.
한규성. 천부경과 도의사회. 서울. 동방문화. 1987.

18. Yeom YH, et al.. Literature research on the Jinkuiyuhanjing.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and Pathology. 2002. 16(1).
염용하 외 3인. 금궤옥함경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1).

19. Yang YX. 《Jinkuiyuhanjing·Zhengzhizongli》dangchuzizhongjing. Magazine of Chinese Medical Literature. 2007. 2.
梁永宣. 《金匱玉函經·證治總例》當出自仲景. 中醫文獻雜志. 2007. 2.

20. Zhang B. Academic value of 《Shanghanlun》 in the 《Jinkuiyuhanjing》. Shando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Masters Dissertation. 2002.
張波. 《金匱玉函經》在《傷寒論》研究中的學術價值. 山東中醫藥大學. 석사학위논문. 2002.

21. Jiang DY. The relationship between Jinkuiyuhanjing, Zhengzhizongli, and Sun Simiao's Qianjinyaofang. Bulletin of Chinese Medicine. 1985. 2.
姜德有. 金匱玉函經·證治總例與孫思邈千金要方的關係. 中醫藥學報. 1985. 2.

22. Liang L. Discussion on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Zhangtaiyan's research on Shanghanlun.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Masters Dissertation. 2006.
梁蕾. 試論章太炎傷寒論研究的特點與成就. 북경중의약대학. 석사학위논문. 2006.

23. Qian CC. A Study on the Situation in which Shanghanlun was Edited and Published by the Jiaozhengyishuju of the Northern Song. Shanzi Zhongyi. 2013. 29(4).
錢超塵. 北宋校正醫書局校定傷寒論情況簡考. 山西中醫. 2013. 29(4).

24. Huang LX. Public Opin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private editing of the Jiaozhengyishuju of the Northern Song.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7. 3(4).
黃龍祥. 試論宋代校正醫書局私改醫書之弊. 中國中醫基礎醫學雜志. 1997. 3(4).

25. Meng YL. A Study on the Jiaozhengyishuju of the Northern Song.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Doctoral Dissertation. 2014.
孟永亮. 北宋校正醫書局研究. 北京中醫藥大學. 박사학위논문. 2014.

26. Meng YL, Yang YX. A Study on the Jiaozhengyishuju of the Northern Song on the Publications of Zhangzongjing. Bulletin of Liaon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5. 17(5).
孟永亮, 梁永宣. 北宋校正醫書局對張仲景著作校勘考述.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15. 17(5).

27. Meng YL, Yang YX. A Study on Gaobaoheng, Director of the Jiaozhengyishuju of the Northern Song. Magazine of Chinese Medical Literature. 2014. 6.

孟永亮, 梁永宣. 北宋校正醫書局官高保衡考述. 中醫文獻雜志. 2014. 6.

28. Yeo MK, Yoon JH, Kim KW. Discussion about prescriptions from Sanghanjabbyingron, reported in Bohenggyuljangbuyongyakbubyo.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4).
여민경, 윤종화, 김기욱. 보행결장부용약법요에 기재된 상한잡병론 방제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26(4).
29. Lee KW. Three Religions-Unity Theory. Bulletin of Buddhism. 2009. 53.
이기운. 동의보감의 사대설 수용과 삼교회통사상. 불교학보. 2009. 53.
30. Kim JM. A Study on the Four Major theories of Buddhism and the Acceptance of Traditional Medicine. Seoklim. 2005. 39.
김진무. 불교의 사대설과 한의학의 수용에 관한 고찰. 석림. 2005. 39.
31. Kim HK. Historical Consideration of 「Yukdae-euihaksungsee」 in 『Euirimchwalyo』.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0. 13(2).
김홍균. 『의림촬요』의 「역대의학성씨」에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2000. 13(2).